

이강하미술관서 필리핀 현대미술 만나고 프랑스 '팔레 드 도쿄' 광주시민회관 전시

광주비엔날레 해외 미술기관 참여 파빌리온 프로젝트 작가·전시공간 확정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해외 유수 미술기관들이 참여하는 2018광주비엔날레 위성 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Satellite Project) 참여기관의 전시 공간과 타이틀, 참여 작가가 확정됐다. 광주시민회관, 무작사, 이강하미술관 등지에서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열린 광주 전시를 역동하는 현대미술의 장으로 열어낼 예정이다. 특히 2008년 타계한 '무등산 작가' 이강하, 이매리 설치작가, 이세현 사진작가 등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팔레 드 도쿄와 광주시민회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 전시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는 구동 광주시민회관에서 'Today Will Happen'전(9월 6일부터 10월 20일)을 연다. 이 전시는 팔레 드 도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이 공동기획·제작한다. 지난 2015년 재개관한 광주 근대 건축물인 광주시민회관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군이 사용하던 공간이다.

전시 큐레이터는 장 드 르와지 팔레 드 도쿄 관장 겸 김성원 아시아문화원 전시사업본부장이 맡았으며 베다르거&페우스, 최윤, 줄리안 크루제, 데이비드 두아르드, 니하오, 미셸 우엘벥, 타릭 키스완슨, 권하은, 이매리, 장영규 작가 등이 참여한다.

전시 제목은 프랑스 시인 미셸 우엘벥(Michel Houellebecq)의 1996년 시집 'The Art of Struggle' 속 동명의 시에서 빌려왔다. 미셸 우엘벥의 시와 작가가 쓴 시에 대한 글은 한국 시인의 참

핀란드 헬싱키 아티스트 프로그램 무작사 로터스갤러리서 작품 선 배
이매리·이세현 등 지역작가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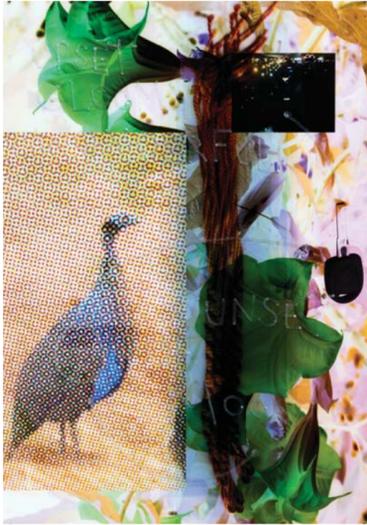
여로 한국어로 번역되며 이 한국어 텍스트에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광주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작가가 리믹스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무작사 로터스갤러리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핀란드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HIAP - Helsinki International Artist Programme)은 전시 공간으로 무작사 로터스갤러리를 활용한다.

큐레이터 제니 누르메니에미가 기획한 'Fictional Frictions' 타이틀의 전시에는 핀란드와 한국작가 5명이 참여한다. 광주비엔날레 주제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한 조각과 사운드 기반 설치작업이 주를 이룬다. 광주의 이매리 작가는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상상력을 반영하며 기념비적인 풍경들 우리 등을 활용해 형상화하고 엘리나 바이니 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명에 대한 암시를 담은 대형 모래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안정주와 전소정은 협업 프로젝트인 밴드 '검은 밥'의 정규앨범 '광상의 산'을 LP 레코드 형식으로 선보인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개인의 기억과 감각으로 포착해 개인이 어떻게 집단의 기억을 공유



줄리안 크루제 작 'Upset gloom'

하거나 망각하는지, 그것이 개인의 현재 삶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 되는가에 대해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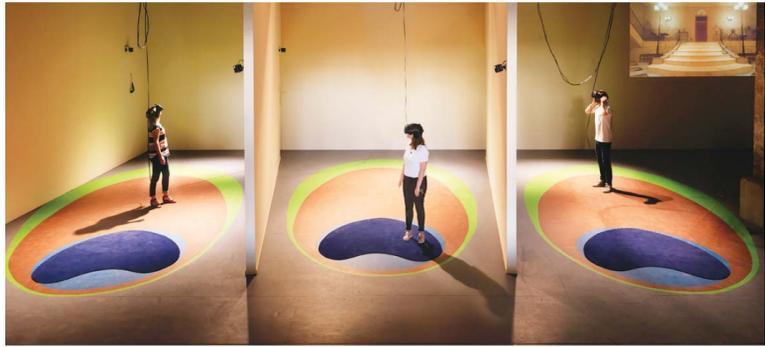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와 이강하 미술관

필리핀 현대미술기관 연합체인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Philippine Contemporary Art Network)는 'Hothouse'라는 타이틀로 올해 초 개관한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및 북구에 위치한 신생 미술공간에서 전시를 선보인다.

마크 살바투스, 인디 파레데스, 도미니크 망길라, 렌즈리, 이강하, 이세현 등 한국 작가와 필리핀 작가 총 6명이 참여한다. 2015비엔날레 필리핀관 큐레이터, 2008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등을 역임한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 대표인 패트릭 D. 플로레스가 기획을 맡았다.

제철이 아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구조를 뜻하는 단어 'Hothouse'는 생명체가 예외적으로 빠르게 자라게끔 조성한 자연과 인공 사이의 접촉지대이며 유리로 된 환경인 온실을 의미한다. '뜨거움(hot)'이라는 감성적 요소와 '집(house)'이라는 공간 사 이를 가로지르는 상황에 주목한 전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권하은 작 'Bird lady'

광주아무르합창단 정기 연주회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아무르합창단(단장 임정수)은 9일 오후 5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사랑을 위하여 다 함께 노래를'이라는 주제로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광주아무르합창단은 지난 2011년에 창단됐으며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공연을 여는 혼성합창단으로 지휘는 유용장이, 반주는 심숙경이 맡았다.

이번 공연은 1년 사계절에 맞춰 소프라노 문혜란의 김동진 곡 '목련화', 테너 명제철의 최영섭곡 '그리운 금강산', 베이스 윤형의 임금수 곡 '사랑하는 마음', 소프라노 유승미의 김효근 곡 '눈'으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특별출연으로 광주CBS여성합창단이 이현철

곡 '격정말야요 그대', 윤학준 곡 '주함께 살리라'를 선보인다.

또 광주아무르합창단이 독일인류 '소나무', 최영철 곡 '동백섬', 만화영화 주제곡인 '마징가Z'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방청객들과 다함께 노래를 코너에서는 피아노 박유나의 반주로 하덕규 곡 '가시나무새', 한울 곡 '홀로 아리랑' 등을 무대에 올린다. 문의 010-3328-7119. /전재문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정일 시인·조정태 작가 시화전 '몰래 한 사랑'

8일까지 광주 주안미술관

'달빛의 하얀 사랑을 받으며/ 소슬바람의 살가운 대기를 들으며/ 가슴을 열었을 때 /까만눈에 보송한 울음처럼/ 그 이전부터 우리 끈으로 묶여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움 2' 부분)

전시장에 걸린, 조정일 시인이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시' 작품 '그리움 2'와 어우러진 그림은 남녀의 심장이 함께 연결된 조정태 작가의 담담한 수록화다.

시인과 화가가 함께 한 시화전 '몰래 한 사랑' 전이 오는 8일까지 광주 주안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정일 시인의 시와 민중미술작가 조정태 화가의 수록 그림이 어우러졌다. 두 사람은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다.

작은 아버지인 조 시인의 시집 '몰래한 사랑'에는 '공중 그네', '하늘 가는 길', '그리움' 등 80여 편의 시가 실렸고 조카인 조정태 작가는 시에 영감을 받아 삽화를 그렸다.

현재 강진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조 시인은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강진 은누리 문학회원, 한실문예창작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동그런 문학회, 탐스런 문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몰지 않는 새'

조선태 출신인 조 작가는 광주민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 광주 민미협 기획 '오월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발표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208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베르너 샷세' 전 내일 작가와의 대화

하정웅미술관...홍신자·성완경 참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중인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 베르너 샷세' 연계행사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베르너 샷세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7일 오후 3시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작가 베르너 샷세와 아내이자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홍신자, 미술평론가 성완경 교수가 함께 자리해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 베르너 샷세의 기타연주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베르너 샷세가 구축한 예술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자로서의 삶, 자신이 바라본 한국사회에 대한 평소 생각을 진솔한 시각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작가와 패널만의 대화를 듣는 진행방식이 아닌, 시민들과 패널이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타 연주를 들려줄 베르너 샷세

베르너 샷세(Werner Sasse, 1928)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태생으로 1966년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독일 첫 한국학 박사로서 한국에 대한 연구활동에 매진, 서구사회에 한국학을 전파해 왔다. 세계적인 전위무용가 홍신자와 결혼 후, 담양에 터를 잡고 연구와 그림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의 062-613-71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 모집

광주 출신의 작곡가 정율성을 기리는 2018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에 참가할 인재들을 찾는다.

지난 2012년부터 정율성축제 일환으로 추진돼 온 광주성악콩쿠르는 국내 신진 성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제11회 광주성악콩쿠르는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오페라단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빛고을시민문

화관에서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해외 유학생을 포함한 내국인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만원.

경연 일정은 1차 예선 8월 11일, 2차 예선 8월 18일을 거쳐 본선은 8월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7467.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팔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